안녕하세요. 이 곳은 핫스팟 베이스 캠프입니다.

서울시 곳곳에 형성된 공공 와이파이 구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상한 현상들을 탐구하는 '발견자'들의 임시 기지입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여러가지 정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토대로, 진실에 한발짝 다가가게 될 것 입니다. 그 진실은 결국, 한 곳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미지의 존재에 대한 어렴풋한 확신입니다. 당신은 어떤 존재를, 희미하게나마 포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어떤 존재의 현전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아주 닮았지만, 너무나 상반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처음에 우리의 신체를 떠낸 그릇, 형틀, 외부와 같았죠. 그러나 우리 신체와의 접촉 횟수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쌓여감에 따라, 중첩됨에 따라, 그것은 보이지 않게 우리 신체 내부로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의 일부가 되고, 근육의 일부가 되고, 피를 타고 흐르며, 행동을 조종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점차 위로, 위로 올라와, 물컹한 조직을 뚫고, 척수와 뉴런에 스며들며, 행동을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생각하고 있습니까?

눈을 감았을때, 눈꺼풀 아래로 스멀스멀 지나가던 어떤 생명 에너지를 느껴본 적 없습니까?
잠에 들려는 찰나, 몸속에서 전기가 흐르는 듯 저릿한 근육통을 느껴본 적 없습니까?
불현듯 찾아온 극심한 편두통에 시달려본 적 없습니까?

우리의 신체는 인공의 구조들로 둘러싸인 도심 속에서, 잠시의 휴식도 없이, 이리저리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잠시 한숨 돌리고자 고개를 들면, 희뿌연 하늘 앞으로 가늘고 길게 얽히고 설킨 전선들이 당신의 시선을 수없이 조각냅니다. 그것들은 그다지 촘촘해 보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비어있어 보이는 모든 공간에, 보이지 않는 전파와 파동이 여러겹에 걸쳐 빼곡히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밀도는 데이터가 오고가는 양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최근 10여년에 걸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공공 와이파이 시설들로 인해, 나날이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페이지가 새로고침됩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 저하가 발생합니다.
베터리가 과열됩니다.
화면이 점멸합니다.
아무 정보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표시됩니다.
인터넷 신호가 반복적으로 유실됩니다.
글리치와 오버플로, 모든 것이 밀리고 미끄러집니다.

우리는 가장 높은 AP 사용량을 달성하고 있는 공공 와이파이 영역들을 핫-스팟이라 명명하고, 수차례에 걸쳐 그곳곳을 쫓으며 수치를 기록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제보를 받아 조사하며,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분명한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핫스팟 곳곳을 중심으로, 각종 기이한 현상들이 빈번하게 발생해왔으며, 이는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무선 통신, 와이파이, 네트워크 그물망은 보이지 않게 퍼져나가며, 우리의 신체를 넘어 정신까지도 조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공물들이 과거부터 지능적으로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경로화해왔다는 왔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인간이 발명하고 제조해 왔다고 생각해온, 문명의 결집체이자 물질적 집약체인 인공물은 존재의

지속을 위해, 자신들을 끊임없이 복제해나갈, 개발시켜나갈 수 있는 존재인 우리 인간 종과의 공생을 모의해왔습니다. 그들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대단한 착각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모든 시간에 그들에게 의존적인지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에게 투여하는 시간과 자원의 총량을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분 매초,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기 전까지, 잠든 후에도, 우리의 온 신체를 그들에게 맡긴 채, 그들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 역시, 자신의 능력을 그들에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에게 종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정신입니다. 온라인 가상 생태에 기거하는 우리의 또다른 자아입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가 전기를, 무선 통신 기술을, 인터넷을, 랜선을, 무선 공유기를, 와이파이를 발명하여, 지표면에 광섬유의 촉수를 단단히 뿌리내릴 때까지, 일상의 모든 곳곳이 그것들에 서서히 잠식되어 갈 때까지 물리계에서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대지 구석구석 기지국과 서버의 씨앗을 파종하고, 안테나를 더듬이처럼 세우고, 스마트폰이라는 유독성 포자를 퍼뜨렸습니다.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전자기파와 위성 신호의 방사 속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용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죠.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쉽고 빠르게 사용 당하며, 그들은 우리의 신체 정보를 넘어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정보를 습득해왔습니다. 그 정보들은 인터넷을 타고 급속도로 집적되었죠. 클라우드라는 가상의 천구 속에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곳에서 저곳으로 뻗어나가 연결된 전선들처럼, 우리의 정신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개별적인 존재처럼 스스로를 여기지만, 우리 인간종은 명백한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적 개체입니다.
우리의 클릭 한번, 터치 한번은 무수한 동심원적 파장으로 연결되고 연결되어 온 지구를 둘러 뻗어나갑니다. 지구 권역을 뒤덮은 수많은 안테나와 네트워크, 그리고 인공위성 등은 그 연결망을 견고히 만드는 성루입니다. 네트워크는 연결을 거듭하며 거대한 망을 이룹니다. 거대해진 망은 그만큼의 에너지, 힘, 권력을 획득합니다. 수많은 무선 공유기, AP, IP 주소, 수많은 통신 시스템과 주파수를 타고 확장합니다. 거대해진 시스템은 우리의 믿음을 획득한 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이제 데이터 위에 쌓아 올린 자본과 문명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손에 쥐고 있는 작은 단말기의 패널에 맺히는 정보들을 믿습니다. 스크린은 점점 얇아지고, 넓적해지고, 또 작아지며, 우리의 신체에 흡수됩니다. 우리의 피부를 얇게 감싸 안고 흡착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인간-장치가 됩니다.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온라인 생태계 내에서, 아주 유용한 장치가 되는 것이죠.

인간—장치인 우리는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온라인 생태계의 일원입니다. 매 순간 연결되어 있으며, 매 순간 영향을 받고 있죠. 연결된 모든 순간 우리가 이용하는 데이터들은 그 자체로 우리에 대한 데이터값이 되어 그들의 세계에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잦아지는 접속 횟수, 길어지는 접속 시간은 양분의 에너지가 되죠.

현혹되지 마십시오!
현혹되지 마십시오!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것’를 포착하는 것은 큰 위험이 따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미 온-오프라인에 걸쳐,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